

아름다운 미소, 건강의 지름길

입력 : 2009-03-03 00:00 | 수정 : 2009-03-03 00:00

해가 거듭될수록 야속하리만치 찾아오는 노화증세는 언제나 심신을 고달프게 한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을, 무릎관절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빠걱거리고 머리는 점점 하얗게 변해간다.

급기야 멀쩡했던 치아까지 흔들리더니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씹 빠져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만다.

이처럼 노화증세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관문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나이 탓을 하며 자연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억울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외모에 자신감을 되찾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중 약해진 잇몸으로 인해 상실된 치아가 있다면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로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자.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의 자리에 인공적인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연치아에 버금가는 심미성과 기능을 가지는 좋은 대체 치아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작력이 좋고 틀니처럼 끼웠다 뺐다 하는 불편이 적기 때문에 음식을 편하게 골고루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심미적으로 안정되어 대인관계나 심리적인 부분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강남 화이트스타일 치과 김준현 원장은 “과거에 비해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 노인 분들에게 임플란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술법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3차원의 CT촬영과 레이저등 첨단 의료기구의 등장으로 과거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노인층에서도 많이 찾고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노인성 질환들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사한 후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